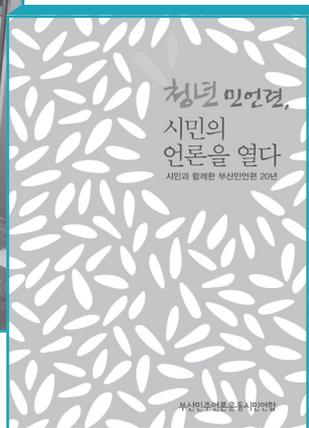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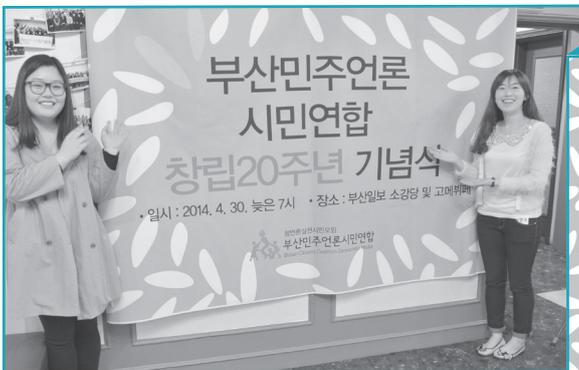


부산민언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함께 있어 힘나고 빛났다



추모의 노란 리본의 물결 속에 도무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부산민언련 20주년의 조출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4월 30일 저녁, 부산일보 소강당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들과 연대해 주는 분들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잠시나마 눈물 마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걱정과 달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랐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벅찼습니다.

부산민언련의 20주년 기념행사는 모두의 힘으로 치른 행사라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추진위원들 스스

로 자신의 일을 맡아 힘을 보탤고 회원들은 후원으로, 백서에 필진으로, 또 행사 진행 봉사로 뜻을 나눴습니다. 연대 단체들의 격려도 큰 힘이 됐던 건 두 말할 필요 없고요. 소박하나마 우리 힘으로 하나 하나 만들어 낸 20주년 기념행사라서 앞으로 적어도 20년은 끄떡 없을 것 같은 든든함을 얻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함께 일 때 힘나고 빛이 납니다.'

이제 20살이 된 청년 민연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된 부산민언련 20주년 기념행사의 자세한 소식은 2~3면에 실었습니다.

Contents

- 02 창립20년 행사 이모저모
- 04 언론비평 세월호와 함께 몰락한 '언론'
- 05 활동소개
- 06 6·4 지방선거 모니터 보고서
- 07 회원활동/ 새회원소개
- 08 그림세상/ 고맙습니다



'언론'을 생각하는 '언론학교' 개최

시민 감시와 참여가 건강한 언론 만드는 힘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언론학교>는 부산시민들께 드리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4월 2일(수)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언론학교>는 그야말로 '언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강의는 부산민언련 초대 대표인 채백 교수(부산대 신문방송학)가 맡았습니다.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나"라는 일반적 질문을 시작으로 부산 언론사를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1960년대 올림픽이 열릴 땐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일본 방송이 잡히는 TV를 봤다는 이야기부터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에 얽힌 역사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모처럼 언론학교 강사에 나선 채백 교수는 "부산시민들은 부산에 너무 관심이 없다"며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때 사회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사회정책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한귀영 씨는 '넘쳐나는 여론조사 그리고 정치'에 대해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귀영 연구원은 여론조사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며 여론조사를 근거로 아젠다 셋팅하는 언론의 행태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또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벗어나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여론조사나 숙고된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조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4월 16일 마지막 강의에 나선 변상욱 CBS 대기자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돌아보며 언론시민 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해 주었습니다. 외연을 넓힐 방법을 찾고, 지역에 관심은 신문사 하나를 키울 힘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변상욱 대기자는 방송을 통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언론인에게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언론학교도 3회 강의 모두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다시 언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요즘, '언론'의 기능과 시민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다시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격려와 축하 넘쳤던 20주년 창립 기념식

부산민언련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4월 30일(수) 저녁 7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00 여명이 넘는 회원과 축하객들이 함께 한 이번 기념식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윤영태 대표(동의대 신문방송학)는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단체는 지난 20년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더욱 힘차게 걸어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부산시민과 연대 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김대래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부산 경실련 공동대표), 이완기 (사)민언련 상임대표,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언론 개혁을 위해 앞장서온 부산민언련의 역사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념식의 절정은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단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20년 회원에게 드리는 공로패 수여 시간이었습니다. 채백, 김재경, 장길만, 이진규, 황미향, 황대진, 장호출 문정임, 김성우, 김남원 회원님이 공로패의 주인공이었고, 대표로 채백 전 대표님이 수상 하였습니다.

또 10년 이상 (19년 이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60명의 회원을 대표해 이희길 회원님(부산MBC 국장)이 10년 회원증을 받았습니다.

기념식 당일 발간된 <시민과 함께한 부산민언련 20년 활동백서>와 기념영상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고메 뷔페로 옮겨 진행된 2부 식사와 인사 시간은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언론개혁 운동과 풀뿌리 미디어 운동 조화롭게 벌여나가야

지역언론 운동 평가와 전망 좌담회 개최

부산민언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좌담회 '지역 언론운동 평가와 전망'이 4월 30일 오후 5시부터 부산일보 10층 국화실에서 열렸습니다.

신태섭 교수(동의대 광고홍보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언련 대표 및 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언론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영태 부산민언련 대표와 복성경 부대표를 비롯해 이완기 (사)민언련 상임대표, 이건혁 경남민언련 대표 (창원대 교수)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 등은 각 지역에서 진행해온 언론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며 성과와 고민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90년대부터 줄곧 진행해온 언론감시운동은 언론을 개혁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미디어운동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활동상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마을 미디어 운동, 대안 미디어 운동도 적극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언련들의 과제인 회원 확보와 조직 확대는 더욱 세밀히 연구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좌담회 결과는 각 지역 민언련과 공유하고 이후 부산민언련 비전 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원, 시민 후원으로 일궈낸 백서와 20주년 기념식

162명, 26개단체 후원, 41명 후원 인증 참여

부산민언련의 20년 활동을 담은 백서 <청년민언련, 시민의 언론을 열다>와 창립20주년 기념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열렸습니다. 모두 165명의 회원 및 시민들, 그리고 26개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부산민언련 20주년 후원 '힘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특히 41명이 페이스북 후원 인증에 참여했고, 이 후원 인증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또 다른 후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힘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창립2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언론비평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언론의 '신뢰', 언론의 정상화를 통해 회복해야



△ MBC 4월16일 오후



△ 김환영 사장 퇴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한 KBS노동조합

원숙경

언론학박사/ 동의대학교 강사

사회학자 기든스는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틀로 '신뢰'를 꼽고 있다. 신뢰는 존재론적 신뢰와 기본적 신뢰의 연장선상에서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것이 존재론적 신뢰와 기본적 신뢰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격적 신뢰뿐 아니라, 비인격적 신뢰 즉 사회적 시스템의 신뢰도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신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강직해야 하고, 의연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이 모든 것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 언론의 침몰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징후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은 침몰하는 언론의 흉물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언론이 지켜야 할 선(線)이 있다. 인격적 차원에서 신뢰 붕괴는 유족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언론은 유족들의 존재론적 신뢰와 기본적 신뢰를 저버렸다. 무자비한 취재 행태는 유족에 대한 사적 영역의 거침없이 파괴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언론이 술신 수범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배가시켰다. 유족들에게 행한 희망고문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과 같은 형식의 보도는 언론에 대한 유족은 물론 시민들의 분노도 불러일으켰다. 취재의 기본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다. 재난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전달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

하여 확실해진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보도는 신속한 전달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은 유족들에게 상처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미확인된 사실 보도는 유족들과 시민들에게 인격적 차원의 신뢰를 부셔버렸다. 게다가 유족을 '중복'으로 칭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재생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을 가했다. 이는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마찬가지다. 근거 없는 '중복' 논란 보도, 그것은 네가티브적 기사든 포지티브적 기사든 반복적인 언론노출이 시민들에게 유족을 '중복'으로 틀 지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극적이고 비판적인 기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 시스템의 신뢰붕괴다. 언론은 정부와 해수부, 해경, 그리고 유족, 시민 등을 연결해 주는 공론장이다. 언론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고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인간적 신뢰뿐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론장의 붕괴는 사회적 시스템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끊김을 의미한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해경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전면에서 내세우게 하는 편성, 정부 비판적

내용을 뉴스 후반에 배치하는 등 5공의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행위 등이 공영방송에서 행해졌다. 언론의 자기검열뿐 아니라 정부의 나팔수의 역할을 KBS가 주도적으로 행해 왔다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 확인했다.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김환영 KBS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부 종편들은 세월호 사건을 감성적 코드로 끌어가고 있다. 노골적으로 세월호 사건과 선거를 연결시키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한 종교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벼랑을 향해 달리는 언론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는 어디에도 없다. MB정권이후 언론의 자발적인 자기검열과 국가기관의 언론간섭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금의 언론 구조라면 어느 누구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없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은 언론은 사회적 시스템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

최근 공영방송에도 자성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KBS막내 기자들의 반성을 기점으로 언론의 자기 성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언론노조는 '비정상적 정상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명운을 걸겠다. 그 첫 번째 조치는 비정상적인 언론을 정상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격적 신뢰와 사회적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언론의 정상화이다. 언론의 편성권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활동 소개



재난키우는 관제방송 규탄 기자회견

KBS 양대 노조 '길환영 사장 사퇴' 촉구 파업 결의

5월 9일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연대는 KBS부산총국 앞에서 '유가족, 희생자 모욕하고 재난키우는 관제 방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형 오보와 축소 보도도 모자라 '사망자가 교통사고보다 적다' '유가족 선동' 과 같이 유가족 모욕까지 저지른 언

론들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KBS 경영진은 5월 8일 세월호 참사를 모욕한 김시곤 보도국장 사과를 요구하며 KBS를 찾은 유가족들을 밤새 외면하다가, 유가족이 청와대로 향해 농성을 벌이자 그제서야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앞으로 가 사과를 하고 김시곤 국장의 사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의 외침엔 미동도 없다가 청와대의 호출에 적극 응답하는 '권력바라기'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부산본부장과 황재문 부산 YMCA 시민중계실 실장, 복성경 부산민언련 부대표, 김동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양미숙 사무처장, 노민현 청춘멘토 이사 등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언론들의 진실보도를 촉구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KBS는 이후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하여 38~40기 새내기 기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전 직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정권의 보도 간섭'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 폭로가 이어지면서 길환영 KBS 사장 퇴진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노동조합, 언론노조 KBS본부 양대노조는 각각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5월 28일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언련 활동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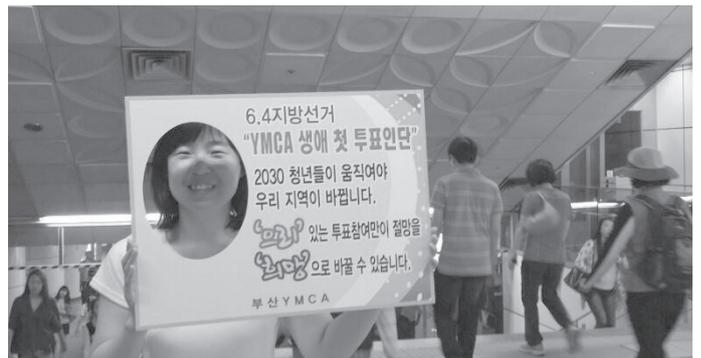
“유권자 참여·공약 검증 보도 해야”

언론노조와 간담회 개최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연대는 지방선거를 맞아 '6·4지방선거 보도 부산시민모니터단' 활동을 진행기로 했습니다. 첫 행사로 5월 12일 부산민언련 강당에서 지역언론노조 관계자들과 '6·4 지방선거 보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KNN 노조 강필희 지부장과 KNN 공정방송위원회 도재성 간사, 부산MBC 임선웅 민주언론신철위원회 위원과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 실장, 이원규 민중연대 미디어팀장, 복성경 본회 부대표 및 모니터모임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자리한 이들은 “지역 이슈를 잘 개발해 공약으로 반영토록 이끌어 달라” “사전 선거, 투표율 높이도록 적극 알려 달라”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쏠려 달라” “대중 내놓은 공약의 허점을 파헤쳐 달라” 등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전달하겠다고, 또 선거 보도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6·4지방선거 보도 부산시민모니터단'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니터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연대 6·4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연대는 5월 27일 금요일 서면 지하철 환승구역에서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투표 참여와 사전투표제 홍보 캠페인을 벌였고, '민선6기 부산시장에게 바란다'는 설문판을 설치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시민들이 투표 약속 인증사진을 찍고, 설문판에 스티커를 부치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언론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 상업개발에서 손떼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관련 성명 발표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동해남부선 옛 철길 부지에 대해 무분별한 상업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개발 사업자로 KNN, 부산일보 등 지역 언론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4월 4일 <지역언론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 상업개발에서 손떼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무분별한 상업개발, 난개발 논란에 대한 침묵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민과 함께 하며 지역 사회 문제를 감시하고 공론화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지역언론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 상업개발에서 손 떼라! 그리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분별한 상업개발 감시에 적극 나서라!”고 논평했습니다.

6.4 지방선거 지역언론 모니터

선거보도, 유권자는 없다

사무국

방송

교육감 선거 보도 비상!

공약, 정책 분석하고 군소정당·신인 '출대' 주의해야

5월 15일~16일은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있었다. 그야말로 선거가 본격화 되었다.

이에 앞서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상공회의소는 경제 관련 공약을 후보에게 제안했고,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를 비롯한 원전 관련 공약을 제안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또 김영춘-오거돈 단일화 협상 결과 오거돈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됐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의 승진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유죄 선고 받은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의 전 보좌관 박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박씨는 서병수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낼 때 지구당 사무국장과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이고, 원전 비리 문제는 선거 이슈이기도 해 지역의 관심이 모아졌다.

분류	KBS부산	부산MBC	KNN
보도 합계	16	27	9
교육감 관련 보도	3	2	0

*5월 12일~18일 선거 보도
(울산, 경남권 기사는 제외함)

중요성 비해 부족한 교육감 선거 보도

이번 모니터 기간에도 교육감 선거 관련 보도는 부족했다.

KBS부산은 총 3건 보도했고, 후보 난립과 보수 성향 후보의 동정을 담았다. ▲5월 12일 <교육감 선거, 보수후보 난립 언제까지?>에

서는 제목과 달리 보수 후보의 입장만 차례로 나열했고 김석준 후보는 세를 모으고 있다는 언급만 있었다. 나머지 2건은 보수 성향 후보의 동정이었다. 유권자에게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부산MBC는 총 2건 보도했다. ▲5월 13일 <부산교육감 여론조사 절반이상 '부동층'>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교육감으로 누가 적합한가, 교육감 선택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를 소개했다. 또 ▲5월 16일 <교육감 후보 '설전'>에서는 김석준, 박맹원, 임혜경 세 후보의 초청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보도했다. 부산MBC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별 공약 차이 등을 소개하는 일은 긍정적이다. 단, 왜 3명의 후보만 토론회를 벌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 아울러 여론조사나 토론회 결과 나타난 교육 문제를 정책 점검 형식으로 후속보도 해주길 바란다. KNN은 한 건도 없었다.

'편파 보도' 의심 보도 눈에 띄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의 승진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유죄 선고 받은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의 전 보좌관 박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서병수 후보 최측근의 인사 청탁 사건인 만큼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방송3사는 어느 곳도 보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알아야 할 사안을 모르게 됐고, 서병수 후보에게는 도움이 된 셈이다.

부산민언련은 '6.4지방선거보도 감시단'을 구성하고, 5월부터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5월 둘째 주 지역방송과 신문의 선거 보도 모니터 결과를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더 많은 모니터는 홈페이지(bssiminet.or.kr), 페이스북(www.facebook.com/sim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_ 2014년 5월 12일~18일

대상_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반면 부산시장 후보 가운데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에 대한 보도는 소극적이었다. 특히 KBS가 두드러졌다.

KBS는 ▲5월 16일 <오거돈으로 단일화>에서 고창권 후보가 등록했음을 언급만 했고, 오거돈, 서병수 후보는 각각 출마의 변을 인터뷰 했으나 고창권 후보는 하지 않았다. 다음날 <서병수-오거돈 시장 후보 나란히 행사 참석>에서도 두 후보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고창권 후보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부산MBC는 ▲5월 17일 <후보 등록 후 첫 주말, 시장 후보 선거전 돌입>에서 세 후보의 동향을 골고루 다뤘다. 하지만 각 후보별 동향에 후보자의 영상이 함께 나갔는데, 고창권 후보의 동향이 언급될 땐 오거돈 후보의 자료 화면이 나갔다.

KNN은 ▲5월 16일 <후보등록 마감, 본선 경쟁 시작>에서 출마의 변을, ▲5월 18일 <"휴일 표심을 잡아라">에서 세 후보의 동정을 골고루 보도했다.

다양한 보도 시도 부산MBC...

공약 검증 보도 절실

이번 모니터 기간 부산MBC 선거 보도는 총 27건으로 눈에 띄게 많아졌다. 보도 내용도 다양했다. 무엇보다 '선택 2014'이란 이름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관심을 쏟은 것은 고무적이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부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 여론 동향을 점검하는 것도 시의적절했다.

회원 근황을 소개합니다

최상원 회원님(한겨레 기자)이 진주의료원 보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원과 관련하여 보도를 한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사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보도를 했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창원지법은 5월 27일 재판에서 홍준표 지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견제를 통제하기 위한 소송 남용에 적극 대응해 결국 승소했는데요, 위로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새 회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단체 언론학교를 수강한 **우명주** 님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명주 님은 독도사랑문학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언론활동과 기고도 꾸준히 하고있다고 하십니다. 부산민언련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4월 30일 20주년기념식에 참석해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님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김석준 님은 부산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로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사회학자로서 부산지역의 노동문제, 지역운동에 대한 연구와 저서를 발표해왔고, 오랫동안 진보정당 활동,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실천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대 활동에서 자주 만나왔는데, 직접 인연이 없다가 창립20년 기념식에서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신문

야권 후보 단일화 '되나 안되나'만 관심

서병수 후보 '세불리기' 부각... 군소정당 출대

주제	국제신문	부산일보
김영춘, 오거돈 야권단일화	8	12
교육감 보도	6	3
공약, 정책	2	3
유권자참여, 정책 제안	1	6
선거보도 총 보도 건수	49	61

*5월 12일~18일 선거 보도
(울산, 경남권 기사는 제외함)

야권 단일화 집중 보도 ...

내용보다는 '과정'에만 초점

야권 단일화 논의는 5월 12일 김영춘 의원이 오거돈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제의, 철회, 재개 등의 과정을 거쳐 오거돈 후보로 단일화됐다. 이 기간 지역 신문의 야권 관련 선거 보도도 '단일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도 건수를 보면 국제신문은 8건, 부산일보 12건 이었고, 1면 기사의 경우도 부산일보는 5건(3건은 머릿기사), 국제신문은 3건 보도하는 등 비중있게 다뤘다.

지역신문은 야권 단일화를 주요하게 보도하

면서, '7대 개혁과제' '부산시민연합정부 구성' 등 야권 단일화의 주요 의제나, 단일화 과정의 명분이나 문제점 등 정작 유권자 입장에서 평가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오로지 '단일화 되나. 안되나'에 초점 맞춘 중계식 보도가 주를 이뤘다.

그나마 국제신문은 5월 16일 <부산 대개혁, 기득권 타파 '7대과제' 시민연합정부 구성해 실천 합의>에서 '7대 개혁과제'와 '부산시민연합정부'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서병수 후보 '세불리기' 부각 ...

고창권 후보 보도 소외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선거대책위를 보강하고, 도시재생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신문은 서병수 후보의 '세 불리기'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5월 13일 <갈라졌던 부산 새누리..서병수 중심으로 급속히 뭉친다>(3면), 15일 <베일 벗는 여부산 선대위 '김무성 총괄 지위 체제로'>(5면), 국제신문 5월 16일 <서병수 55%+알파 득표 전략..부산 여의원, 친박조직 등 총집결>(3면)에서 서후보의 '세 불리기'를 보도했다.

반면, 모니터 기간 서병수 후보 전 보좌관의 항소심 공판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김영춘, 오거돈 후보가 단일화로 주목을 받고,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의 세불리기가 부각되는 동안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보도는 여전히 적었다.

국제신문이 <부산시장 후보 집중 인터뷰 (3)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에서 인터뷰 했고, 부산일보는 고창권 후보 단독기사가 없었다.

또한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으나, 기초단위 후보를 내고 경쟁중인 정의당, 노동당 등 군소 정당 보도도 없었다.

한편, 국제신문은 한 면을 할애해 부산시장 후보 4인을 소개하는 <부산시장 후보 집중 인터뷰>를 게재했다. 기사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정치 여정과 철학 중심으로 소개했는데, 후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획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 면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공약 소개는 빠졌다. 이후 기획에서는 후보들의 '정책 집중 인터뷰'와 '분석'이 이어지기를 요청한다.



그림으로 보는 세상

그림 류창섭

고맙습니다

2014년 4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

가경옥 강동민 강병구 강승화 강필희 광종교 구지영 권영란 권용협 권혁근 권호일 길재섭 김경준 김경화 김기식 김기종 김남지 김다혜 김대영 김대철 김동기 김명혜 김병국 김석환 김성연 김성우 김 숙 김아영 김어진이 김영민 김영준 김용범 김 옥 김은민 김재환 김정근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훈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주만 김주미 김주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숙 김진주 김철기 김태진 김태훈 김하원 김해몽 김현지 김형욱 김형천 김형철 김홍식 남원철 남정숙 노무법인나래 노정현 노현희 도상형 독고지은 류위훈 류은하 류창섭 문소영 문종대 문지용 문진호 민은희 박동혁 박봉환 박상조 박소영 박순옥 박순정 박시현 박영달 박재진 박재혁 박정민 박정희 박주희 박지선 박태순 박홍원 배일진 배혜래 백미화 복성경 서용순 서은숙 서주영 성민영 성은진 손영호 손주성 손현익 송인섭 송태연 신금아 신병률 신은제 신재희 신정식 신태섭 신현숙 심재훈 안명환 안병규 안상훈 안은숙 안지민 안지숙 엄상준 엄창현 예종일 오정무 오정숙 오지은 오창호 오혁진 왕수봉 원경덕 유지호 유원경 유행현 윤대원 윤명숙 윤성호 윤순정 윤영태 윤태연 윤택근 이경균 이경미 이경식 이경태 이경희 이근호 이두원 이명곤 이명숙 이미미 이병주 이상기 이상진 이상희 이셋별 이설강 이성열 이승렬 이승신 이승환 이승훈 이영우 이오상 이원규 이원규 이일수 이지윤 이진규 이행봉 이현우 이혜숙 이호진 이희길 임대현 임상민 임숙경 임언수 임윤희 임은정 임현주 장길만 장동범 장미영 장선화 장익진 장현수 장호출 장흥태 전대식 전미경 전미령 전유남 정경문 정경순 정경훈 정기평 정대원 정명수 정상도 정세화 정수진 정숙희 정순영 정영근 정우윤 정유진 정은주 정은혜 정자연 정재성 정재훈 제봉득 조경숙 조기종 조범수 조봉권 조소희 조재형 조항제 조희란 주명혜 주은희 주정림 차동업 차진구 채 백 최동섭 최상원 최수미 최수영 최용국 최용수 최은정 최지수 최진혁 최태경 최한주 최환웅 하미정 하성창 하은진 하인상 한현욱 허문화 허민경 허소희 허은영 허지안 홍유선 황대진 황상현 황영주

연회비 납부해주신 회원

김남원, 김상현, 김정우, 양승동, 이범수, 이진로

부산민언련은 정부 운영보조금 없이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미디어토리
meditory

영화제작 인쇄디자인 커뮤니티미디어지원

www.meditory.net
tel. 070.4349.0910
email. meditory@meditory.net

부산민언련 회원이 되어 주세요!

1994년부터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과 언론개혁의 한 길을 걸어온 부산민언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사회,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은 그 사회의 거울인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그 시작은 참여와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021-01-054360-1 (예금주 부산민언련)